상품학연구 제37권 6호(2019년 12월), ISSN 1226-6132
Journal of Product Research, Vol.37, No.6(December, 2019), 171~180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운영 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일본 하나아트센터와 수원 에이블아트센터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Management Plan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for the Disabled: Focusing on Hana Art Center in Japan and Able Art Center in Suwon

정 지 은(Jung, Jieun)** · 박 정 배(Park, Jeongbea)***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본 하나아트센터와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 두 사례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운영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 사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살펴보고, 교육과정에 참여한 관계자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먼저 2018년 12월 19일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를 방문하여 대표이사와 1차 심층면담을 진행하였고, 이후 2019년 2월 20일 일본 나라시에 위치한 하나아트센터를 방문하여 큐레이터와 2차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단순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 없이 장애 예술인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장애 예술인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교육기관과 인력들을 양성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들의 예술 공간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넷째,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개성 존중을 바탕으로, 그들이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형 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하며, 유관 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문화상품, 문화산업 등의 학술 연구와 교육 현장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주제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장애 예술인, 에이블아트, 하나아트센터, 민들레의 집

This stud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for the disabled and drew out implications for operation methods of future culture and art education of the disabled To this end, the researcher visited the scene in person and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on participants in the curriculum. First, the researcher visited Suwon Able Art Center on Dec 19, 2018 and conducted the 1st in-depth interview on representative director, and visited Hana Art Center located in Nara, Japan on Feb 20, 2019 and conducted the 2nd in-depth interview on a curator. The researcher summarized this study based on the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mprovement in social awareness is necessary for them to become the disabled artists without prejudice instead of approaching culture and art education for the disabled from the simple welfare level. Secondly, it is necessary to trai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human resources who can be the fence for disabled artists for culture and art education for the disabled to be sustainable. Thirdly, art space of the disabled needs to become widespread not just as a facility, but as a new community space. Fourthly,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self-supporting model for them to become artists by respecting individuality of the disabled who participated in culture and art education. Lastly, studies that identify the present condition and actual condition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for the disabled need to be conducted preceded by the construction of interagency network.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in providing academic research on culture and art education, cultural product, and cultural industry and basic data to the educational sites by presenting direction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for the disabled.

Key words: the disabled, culture and art education, culture and art education for the disabled, disabled artist, able art, Hana Art Center, Dandelion House

* 이 논문은 충남연구원 2018년도 기본연구과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청운대학교 공연기획경영학과 졸업생 정다은, 졸업예정자 김미정은 본 연구의 심층면담 진행 등 보조 연구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책임연구원(Senior Researcher, Department of Urban·Rural & Culture Research, ChungNam Institute, E-mail: jejung@cni.re.kr), 제1저자
*** 청운대학교 공연기획경영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Performance Planning and Management, ChungWoon University, E-mail: pjb@chungwoon.ac.kr), 교신저자

I. 서 론

여가 시간의 확대는 문화향유 및 다양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인 사고를 길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화예술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미적 감성 개발, 공감 및 소통능력 향상, 창의성 증진 등의 효과와 더불어 전반적인 사회·문화적 가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예술 참여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정책들이 확대되고 있다. 2005년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과 연구(정지영, 정지은, 이석규 2014; 정지은, 이석규, 김춘경 2014; 정지은 2016)가 양적으로 활성화되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예술인의 작품은 문화향유와 더불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Baumol and Bowen 1966). 특히 문화예술교육 경험자는 비경험자보다 개인의 행복감 및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드러났고, 문화예술교육 경험 후 문화소비 지불의사가 2배 상승하는 문화향유 저변 확대도 나타났다(정지은, 이제이 2018). 이러한 흐름에 따라 최근 중앙 정부에서는 문화예술, 생활문화, 지역문화 등 문화정책 큰 틀과 연계하여 국민의 문화생활 관점에서 향유와 창작 전 과정을 포괄하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하였고,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계획들이 수립되었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인 확대를 강조하면서, 전국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들의 비언어적 표현법을 익히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는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문화 및 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단편적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0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기본권 투쟁을 위한 '장애 운동'이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인권과 가치 변화, 새로운 시각에서 장애인예술을 재인식하자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경험 만족도, 일회성 프로그램 개발 위주에 그치고 있으며,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흐름과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즉,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현황 및 사례를 살펴보고,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현황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선행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술의 힘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일어난 일본의 에이블 운동과 연계된 하나아트센터(민들레의 집)와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의 사례 조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문화재를 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서 활용하는 교육 전체를 의미하며,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제고하는 교육과정이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적 다양성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술을 통한 교육'의 문화교육과 예술적 자질 함양을 높여주는 '예술을 위한 교육'의 예술교육이 결합된 과정이다(정지은, 이석규, 김춘경 2014).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재학 중인 청소년을 중점으로 운영되는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성인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외 교육과정인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구분하던 이전 시기의 접근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으로 시작되었으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점차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문화시설·청소년 활동 시설·평생교육시설 중 문화예술교육을 시설 등에서 진행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이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정지은, 이인배, 서재승 2016).

문화체육관광부(2018)의 자료에 따르면, 중앙 정부에서는 2016년을 기준 연간 300만 명의 문화예술교육 수혜, 8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 유아부터 청소년, 직장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춰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였다. 또한 문화소외계층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방법의 다각화를 모색하였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은 예술 활동 창작과 감상에 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문화예술향유의 삶을 지향하는 학습, 배움과 관련된 활동이다. 정신적, 문화적 욕구와 그에 따른 예술에 대한 관심은 장애인도 마찬가지이며, 문화적 생활 및 여가생활 실현을 국민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세계적인 흐름 안에서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향유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는 문화예술교육이 전 국민의 권리임과 동시에 문화예술 향유 및 창조적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임을 명시하고 있다(방귀희, 김언지, 오영석 2013).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변화는 특수 교육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장애 학생들을 위한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문화예술교육 과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장애학생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외

에도 모든 장애인이 스스로 삶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교육과정이 발굴되어야 한다.

2.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1)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현황

1975년 UN에서 발표한 장애인 권리선언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자기 자신이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한다.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현재 총 15개의 장애유형이 존재한다. 전 세계 장애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15%이며, 우리나라 장애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4.8%로 정도로 추정되는데,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으로 장애로 인정하는 범위가 좁고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이다(오승연, 김석영, 이선주 2018).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문화기본권과 교육권이 보장되어 사회의 일원으로 문화예술 활동과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 복지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향후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문화 복지의 기본 이념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문화 여가 생활에 대한 균등한 기회보장, 기본적 문화권의 보장, 재활요소로서 문화와 여가의 필요성을 포함한다(백령 등 2005).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대체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 일환인 '장애인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삶을 배려하여 삶의 질 개선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장애인분야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보호 작업장 등 182개 시설 333개 반에 총 6개 분야(연극, 무용, 음악, 영화, 국악, 미술)에 173명의 예술 강사를 파견하여, 연간 35회 내외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양혜원 등 2015).

우리나라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문화 영역이 확대되고, 개념이 확장되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 차원에서 일부 사회복지기관이나 문화시설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편의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제반 환경의 불편한 점과 문화 활동을 담당하는 지도자들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장애인들과 함께 할 준비가 덜 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권재윤, 이소미, 오윤선 2013; 백령 등 2005).

2005년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관련한 연구는 저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옥정달, 유장순 2018). 장애인 예술을 주류예술 자본이나 고급예술의 코드에 맞지 않아 하위 문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비교적 낮은 사회적 평가를 받거나 장애인 예술이 주류예술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삶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인간 자체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데 예술이 도움 될 수 있기에, 그들 스스로를 위한 작품 활동이 필요하다(Crutchfield and Epstein 2000; Finkelstein and Morrison 1993; Riddell and Watson 2007). 최근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경험 혹은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사례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들에게 있어 문화예술교육은 단순히 문화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증진시키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예술이나 문화교육 활동을 매개로 장애인들의 성장을 유도하고, 개개인의 균형적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방귀희, 김언지, 오영석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에게 단순한 예술 활동 지원이 아닌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화예술교육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예술의 힘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첫 단계로, 장애인예술을 새로운 시각에서 인식하는 일본의 에이블 아트 운동과 관련된 하나아트센터 및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일본의 에이블 아트 운동

장애인 문화예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은 '장애운동'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197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1990년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가치 변화를 인지하며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일본에서는 예술의 힘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으로 에이블 아트 운동이 일어났다. 에이블 아트란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시민의 자율적인 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첫 단계로 새로운 시각에서 장애인 예술을 재인식하자는 운동이 전개된 것이다(방귀희 2013; 방귀희 2014).

장애인 예술의 표본으로 꼽히는 에이블 아트(Able Art) 혹은 보더레스 아트(Borderless Art)로 불리는 운동은 민간단체에서 시작했으며, 장애인 예술의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장애인 문화예술 움직임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단체에서 시작했으며, 현재도 정부의 지원에 힘입은 민간단체활동의 역할이 크다. 에이블 아트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에이블 아트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가치를 낮게 평가받는 사람들이 예술을 통해 능력을 높이고, 사회에서 인정받아 활동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송영화 2017).

1990년대 초 일본의 대표적인 장애예술 운동단체인 '민들레의 집'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작품 전람회를 개최하면서, 타이틀을 에이블 아트

로 정하였고, 그 이후 장애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NGO를 조직하여 1994년 에이블 아트로 명명하였다.

에이블 아트가 추구하는 이념은 예술을 통해 장애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과 에이블 아트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장애를 통해 경험한 분노와 고통, 사회적 냉대 등 장애인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예술적 작업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본의 에이블 아트는 장애인 서로의 협력과 연대에서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 예술가와 비장애 예술가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창작 활동의 범주를 넓히고 있다(전병태 2010).

에이블 아트는 장애인 예술이 더 이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장애 예술인들이 사회에서 평등하게 인정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가치를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송영화 2017).

일본의 하나아트센터는 에이블 아트 운동의 거점이라 할 수 있으며, 나라시 소재 '민들레의 집'에서 2004년 설립되었으며, 일본 하나아트센터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수원에 위치한 에이블 아트센터가 건립되었다. 두 기관은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함께 교류하면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활동과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두 기관은 장애인들이 사회적 차별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즉, 두 기관 모두 각 나라에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사회 확산에 기여하는 일본의 하나아트센터와 수원의 에이블 아트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각 기관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둘째, 향후 두 사례의 특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장애인문화예술교육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예술작품이 그 자체로 인식되고, 예술가로서 사회적 창조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사례선정 근거

본 연구에서는 에이블 아트 운동의 거점이라 할 수 있는 일본 하나아트센터와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복합문화예술공간인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일본 하나아트센터는 장애 예술인의 자립을 강조하고, 그들이 작품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예술을 복지나 여가 차원이 아닌 예술가 그 자체로 바라보기 위한 환경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복합공간인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는 일본의 하나아트센터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장애인들의 표현활동을 통해 살아가는 존엄을 획득하는 동시에 사회 내 새로운 예술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 세운 대안예술 공동체 공간이다.

두 사례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사례로, 장애 예술인들이 마음껏 예술적 능력과 개성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그들이 전문예술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어,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두 사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살펴보고, 장애인 예술교육과정에 참여한 관계자와 심층면담(공식면담)을 진행하였다. 먼저 2018년 12월 19일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를 방문하여 대표이사와 1차 심층면담을 60분간 진행하였고, 이후 2019년 2월 20일 일본 나라시에 위치한 하나아트센터를 방문하여 큐레이터와 2차 심층면담을 70분간 진행하였다. Hatch (2008)는 심층면담(공식면담)을 연구자가 정보 제공자의 깊은 이해를 통해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심층적이며, 참여자에게 선행적으로 정보 제공이 되었다는 점에서 공식적으로 보았다. 심층면담(공식면담)은 사례연구를 진행할 때 적절한 연구 방법이며, 사례의 특정 그룹에 속한 관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층 깊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심층면담(공식면담)의 질문 문항은 비개입 데이터와 기존 선행 연구를 통해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 목적에 맞추어 설정하였으며, 심층면담 전 참여자에게 협조공문 및 질문 자료를 사전에 전달하여 충실한 답변을 유도하였다. 또한 면담 전체 내용을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취 후 전사작업을 하였고, 이를 참여자에게 전달하여 부족한 부분과 관련하여 후속 면담을 진행하여 질 높은 정보를 이끌어냈다(윤소민 정지은 2017; 정지영, 정지은, 이석규 2014; 정지은, 윤소민 2017; 정지은, 정지영, 이석규 2013).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심층면담 외에도 국내외 연구문헌, 학술 논문, 정책 자료, 홈페이지 및 사례 관련 브로슈어 등의 비개입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였다.

<표 1> 심층면담(공식면담) 질문내용

심층면담 구성		심층면담 내용
개인적 특성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와 일본 하나아트센터	이름, 직위, 성별, 경력사항 / 설립배경 및 가치관,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한국(일본)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기관의 주요 사업, 향후 추구하는 방향, 시사점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Hatch (2008)의 '유형적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면담 전사본을 분석할 때 질문 문항의 주요 주제들에 유념하여 유형적으로 데이터를 분류하였다. 이후 데이터 발췌 부분의 핵심 개념을 추출 및 정리하여, 유형 내 유사한 문제점과 시사점 등의 패턴을 각각의 범주로 일반화한 뒤, 이를 지지하는 데이터 발췌 부분을 선택하여 이론화하였다. 자료해석의 단계에서 심층면담에 참여한 관계자와 대학교수,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하여 최종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사례의 설립배경, 조직구성 및 공간,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향후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운영 방안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IV. 사례의 분석결과

1. 일본 하나아트센터의 사례 분석 결과

1) 주요연혁

일본의 하나아트센터는 장애를 가진 예술 활동인 에이블 아트의 핵심 기관으로, '민들레의 집'이 운영하는 아트센터이다. 하나아트센터는 공연예술, 시각예술, 작업스튜디오, 갤러리, 카페, 인포메이션 센터, 미팅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설립배경은 다음과 같다.

1970년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두 장애아를 둔 어머니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후 장애인들의 목소리와 상황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었고, 아이를 살해한 잘못이 어머니에게 있기보다는 그런 상황을 방조한 사회에 있어, 어머니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면운동이 촉발된 것이다. 당시 신문기자로 재직하고 있던 하리마야스오라는 장애인의 생활을 취재하다가 이런 문제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하리마야스오와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장애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예술 활동을 하는 '민들레의 집'을 설립하게 되었다(주윤정 등 2016). 이와 관련된 면담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리마야스오 이사장님이 에이블 아트 운동을 진행한 이후 지금까지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이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곳 나라시라에서 하리마야스오 이사장님이 신문지가 신분으로 방문했을 당시 장애인이라는 것은 장애인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 계기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여건이 변화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 활용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술의 힘입니다."

(하나아트센터 큐레이터 2019.02.20.)

'민들레의 집'을 설립한 주요 목적은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만들어, 그들의 상상력을 통해 장애를 넘어서기 위함이다. 수차례 모금 활동과 여러 사회운동의 결과 1976년에 재단법인 '민들레의 집'이 설립되었고, 1989년에는 '민들레의 집'이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었다. 이후 일본 각지의 복지시설에서 개인의 예술 활동이 활발해졌고, 1990년대부터 개별적으로 이어져오던 예술 활동들이 조직화되어 시민 문화예술 운동으로 변화되었다. 1994년 6월 '에이블 아트 재팬'이라는 NPO가 미즈노키, 니시무라, 민들레의 집 등 관련 단체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지속적인 운동으로 확대되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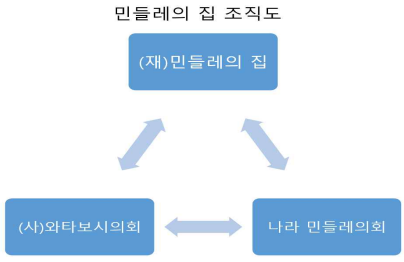
'민들레의 집'은 기존에 복지 중심적인 장애인 시설의 운영을 벗어나 장애인의 예술이 예술적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민들레의 집'은 모두가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1973년부터 콘서트 등의 문화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복지문화 만들기'를 시작했다. 이후 30년에 걸친 활동의 실적으로 인해 2002년, 일본 재단에서 9,840만 엔의 기금과 전국 각지의 700명이 넘는 개인과 단체로부터 3,500만 엔이 넘는 모금을 받아 시설을 리뉴얼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2004년 5월 15일 일본의 장애인 아트센터인 하나아트센터가 설립되었다. 'HANA'는 '꽃'이라는 의미로 하나아트센터에 모이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꽃을 피우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꽃에 빛을 발하고자 붙여진 이름이다(주윤정 등 2016; 播磨靖夫 2004.10.23.).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2004년에 설립된 하나아트센터입니다. 하나는 일본어로 꽃이라는 뜻이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러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아트센터 큐레이터 2019.02.20.)

2) 운영 현황

하나아트센터의 조직 구성은 '(재)민들레의 집', '(사)와타보시의회', '나라 민들레의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재단법인 '민들레의 집'은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하며, 모든 이들에게 윤택한 삶을 살기위해 필요한 것과 미래를 향해 추구하는 과제에 대응해 나가면서 개개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와 문화의 틀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와타보시의회'는 장애인 표현활동을 하는 스튜디오 및 지역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지원해주는 휴먼서비스 역할을 하고 있다. '나라 민들레의회'는 '민들레의 집' 운영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단체로, 생명과 개성을 소중히 여겨 누구나 자기답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1].



출처 : 하나아트센터 홈페이지 http://tanpoponoye.org

[그림 1] 하나아트센터 조직도

하나아트센터의 공간은 스튜디오, 갤러리, 인포메이션 센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와타보시 음악제와 와타보시 콘서트를 꼽을 수 있다. 스튜디오는 아틀리에, 도예실, 염색실, 수편물실 등을 갖추어 다양한 표현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며, 섬유, 회화, 도자기, 책, 이야기, 편곡 등의 아트스쿨이 진행되고 있다. 개개인의 개성 있는 활동이 표현을 존중하고, 칸막이가 있는 공간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작품의 데이터베이스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도예실은 흙을 통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점토와 유약의 보관 장소, 유약 작업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하나아트센터의 주요상품인 오니가 주로 만들어지고 있

1) 하나아트센터 홈페이지 http://tanpoponoye.org

으며, 하나아트센터 작가들의 작품들을 도자기에 전시하여 기념품으로 제작하기도 한다. 장애인들이 공정과정부터 하나씩 배워나갈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아트센터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면담 부분이다.

"이곳은 도예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만들고 있는 것은 오니인데 오니는 집안에 있는 나쁜 기운을 물리쳐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니를 만드는 활동을 제외한 예술 활동들은 자유롭게 진행되지만 도예실에서는 정해진 모양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술이 아니라 공예품을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자유롭게 작품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반복된 작업을 통해 작품을 만들어 내는 공정과정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아트센터 큐레이터 2019.02.20.)

하나아트센터의 갤러리는 장애인들의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과 케어 등 현대사회의 과제를 테마로 한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작품들의 판매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하나아트센터의 전시회 및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은 [그림 2]와 다음 면담에서 나타난다.

출처 : 연구자가 직접 촬영

[그림 2] 하나아트센터의 내부 전경

"연간 10회 정도의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들레의 집 내 장애인들의 작품 및 외부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현재 전시되어있는 작품들은 도로표지판을 활용하여 만든 하나아트센터 소속 작가의 작품입니다....하나아트센터에서 제작된 예술작품들을 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 중 일부는 본인에게 돌아가고, 일부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하나아트센터 큐레이터 2019.02.20.)

하나아트센터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와타보시 음악제'를 꼽을 수 있으며, 장애인들이 지은 시를 전국에 모집하여 멜로디를 첨가하여 노래하는 장애인 예술 음악제이다. 1973년 나라시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 1976년에는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하였다. 1991년부터는 2년에 한 번 아시아 각지에서 '아시아 와타보시 음악제'를 개최했으며, 2006년에는 상해에서 '와타보시 음악페스티벌'을 개최해 국제적인 행사로 성장하였다. 하나아트센터의 또 다른 대표적 프로그램인 '와타보시 음악 콘서트'는 복지 대상으로 비추어지던 장애인들에게 문화를 통해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장애인 문제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문제의식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주윤정 등 2016). '와타보시 음악제'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는 면담은 다음과 같다.

"와타보시 음악제는 장애인들이 쓴 시 위에 음악을 입혀 진행되는 공연입니다. 먼저 장애인들의 시를 모집하여, 심사를 거쳐 10편의 시를 선정 한 후 각각의 시에 어울리는 음악을 인터넷을 통해 모집합니다. 처음부터 시와 음악을 함께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완성된 10곡의 음악이 공연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완성도 있는 한 작품을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하나아트센터 큐레이터 2019.02.20.)

3) 특징

우리나라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는 일본 하나아트센터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장애인들의 수익활동을 돕고 있는 것이다. 하나아트센터에서는 정신지체, 자폐, 발달장애, 시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를 지닌 예술가들에게 매달 10,000엔 가량의 월급을 주고 있으며, 작품 판매량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주윤정 등 2016). 하나아트센터의 예술 활동은 단지 경험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작품은 개별적으로 팔리는 것 외에도 하나아트센터의 다양한 아트 상품 개발을 통해 판매된다. 하나아트센터에서는 회원들의 작품을 기념엽서, 기업체의 광고 등 다양한 사회적 창구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둘째, 하나아트센터 내에 회화실, 도예실, 염색실 등 장애인들이 다양한 예술 활동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미술가, 미술전공 대학생 등 다양한 아트 서포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하나아트센터의 관계자들 또한 장애 예술인들을 교육시키는 역할보다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하나아트센터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소속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각 기관들과 서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쿄에 거점을 둔 '에이블 아트 재팬'과 함께 1994년부터 현재까지 에이블 아트 운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2].

마지막으로, 하나아트센터는 장애인 예술의 상담창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할 때 복지에만 치중되지 않고, 보다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장애 예술인들이 계속적으로 작품 활동

2) 하나아트센터, 「담뽀뽀」에 잘오셨습니다.

을 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들레의집(하나아트센터)에는 복지와 관계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를 전공하신 분, 철학을 전공하신 분 등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이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미술을 전공했고, 복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민들레의집(하나아트센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들레의집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보급·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의 긴끼(KINKI)지방의 일부를 지원하며, 장애인 예술의 상담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작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거나, 예술작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을 고민해보는 세미나, 예술작품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세미나, 지적재산 저작권에 대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나아트센터 큐레이터 2019.02.20.)

2.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의 사례 분석 결과

1) 주요연혁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에서 에이블 아트는 '가능성의 예술', '장애의 예술'을 뜻한다.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는 장애인 문화권리 실현 및 문화예술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표현활동을 통해 존엄성을 획득하는 동시에 사회 내 새로운 예술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 설립된 대안예술공동체이다.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는 국내 최초의 전문 장애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사회 구조 속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개선과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며 설립되었다. 설립배경과 관련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이블 아트센터를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시골에서 만나 3년 정도 함께 생활한 지체장애인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천부적으로 미술에 재능이 있었던 친구는 특별한 교육 없이 스스로 그림을 그리며 미술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랬던 친구가 '그렇게 노력해왔지만 내가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이다. 내 마음 깊이 뚫려있는 이 상처를 메울 길이 없어서 이렇게 죽어갑니다'라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적힌 장문의 유서를 제 앞으로 써놓고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생명, 장애인들을 살려내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친구와 약속을 하면서 장애인 문제에 대한 깊숙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 이사장 2018.1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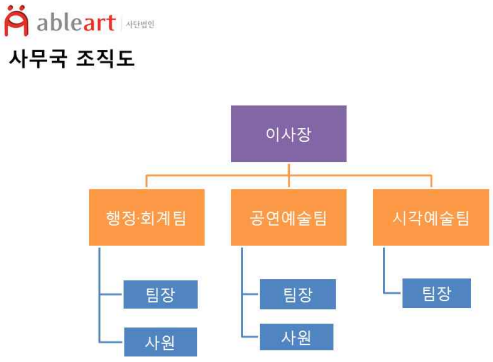
일본 하나아트센터(민들레의 집)와 약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교류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추어진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 건립을 준비하였다. 2000년 장애인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제1회 사랑의 바자회 및 등불문화마당>을 개최하였고, 2005년 일본 하나아트센터(민들레의 집)을 방문한 이후 2007년 에이블 아트센터 기공과 사무국을 오픈하였다. 2010년 9월 제1회 대한민국 장애인음악제가 경기도문화의 전당에서 개최되었고, 장애아동과 청소년 오케스트라 'hello! SEM 오케스트라'가 2013년 10월에 창단하여, 2014년 6월 제1회 'hello! SEM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hello! SEM 오케스트라'는 특별하고(Special), 재능있는(Excellent), 음악인(Musician)의 뜻을 지니고 있는 장애아동청소년 전문 오케스트라로, 2013년 창단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 연주 초청회를 비롯해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공연, 정기연주회까지 섭렵하여 장애 음악인의 음악교육 시스템화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3].

"일본의 에이블 아트센터를 알게 되고, 그들의 정신과 기독교 영성을 바탕으로 재해석해 한국 상황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한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설립을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6년 동안 바자회를 열었고, 그 수익금을 통해 땅을 사고 4년 동안 준비해서 10년 만에 설립하였습니다. 이 기관의 설립에는 일본 하나아트센터의 도움이 컸습니다. 근 10년 동안 계속해서 일본 하나아트센터와 교류했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 한국 상황에 맞게 디자인했습니다. 현재는 양국이 끈끈한 연대를 가진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 최초로 장애인 종합예술공간이 설립되었고, 건물을 완공한 후 2010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 이사장 2018.12.19)

2) 운영 현황

현재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의 조직은 행정·회계팀, 공연예술팀, 시각예술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관련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다.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교육과 문화를 지향하고, 다양한 형태의 전문적인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하면서, 장애 예술인들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



출처 : 에이블 아트센터 내부자료

[그림 3] 에이블 아트센터 조직도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의 공간은 도예실, 공예실, 회화실, 음악실, 문화카페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2층에 위치한 문화카페는 카페 겸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해놓는 공간으로, 상품 판매를 통한 수익금 창출 및 지역 주민들과 맞닿을 기회를 자연스레 제공하고 있다.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공간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

3) 에이블 아트센터 홈페이지 http://www.ableart.or.kr

며, 이는 [그림 4]와 면담에서 나타난다.

출처 : 연구자가 직접 촬영

[그림 4] 에이블 아트센터의 내부 전경

"에이블 아트센터를 만들 때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공간'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와서 놀고 활동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기 위한 공간, 즉 하드웨어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공간의 조성을 위해 일본 하나아트센터의 하리마 야스오 이사장과 직접 만나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고민해나갔습니다. 그렇게 공간 디자인에 대한 확신이 들었을 때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의 설립 계획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 이사장 2018.12.19)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hello! SEM 오케스트라' 외에도 만 13세에서 23세까지의 장애·아동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기쁜샘 플룻 앙상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전문앙상블인 '에이블 뮤직그룹', 에이블 아트 스튜디오의 확장형 교육 프로그램인 '에이블 아트 스쿨', 만 13세에서 25세의 발달장애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각 예술 교육 프로그램인 '새파란 스튜디오', '에이블 아트 스쿨'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과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만든 플랫폼인 '로브먼트 마켓'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일본 하나아트센터는 주로 시각예술 사업을 운영하지만,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에서는 시각예술 외에도 공연예술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일본의 하나아트센터는 주로 시각예술이 중심이 됩니다. 작품을 상품화하는 디자인센터도 건립할 만큼 시각예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공연예술은 와타보시 음악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에이블 아트센터는 hello! SEM 오케스트라, 플룻 앙상블, 에이블 뮤직그룹 등 공연예술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일본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핀란드에서도 우리 오케스트라를 벤치마킹했으며, 일본의 관계자들도 우리 기관을 방문한 후 많이 놀라곤 합니다. 재작년에는 와타보시 초청으로 음악제의 게스트로 공연을 했습니다."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 이사장 2018.12.19)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에서는 실력 있는 아티스트도 배출하는 성과를 드러내고 있으며, 아티스트들은 쓰레기를 소재로 비주얼 아트를 선보이는 김선태 작가를 시작으로 미술을 혼합한 콜라보레이션 아트스트 박길호 작가, 역사와 전통 문화예술까지 아우르는 이마로 작가들이 포함되어 있다(Arte 365 2018.02.05.). 그리고 2009년 일본 아시아 태평양 14개국이 참여하는 와타보시 음악제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한 적이 있으며, 같은 방식으로 대한민국 장애인 음악제를 운영하였으나, 인력과 예산 문제로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2009년 일본 아시아 태평양 14개국이 참여하는 와타보시 음악제를 한국에서 유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와타보시 음악제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같은 방식으로 대한민국 장애인 음악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은 인력으로 6개월 동안 매달리고 매년 1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기에 많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는 프로젝트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 이사장 2018.12.19)

3) 특징

우리나라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는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는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장애인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일본의 하나아트센터를 벤치마킹하여 만들어졌다.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를 설립한 장병용 이사장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 구조적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선진국을 돌아다니며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던 중 2000년도 초, 일본의 하나아트센터(민들레의 집)을 알게 되었다. 이후 2004년 하나아트센터(민들레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장애인 문화예술복합공간을 만들겠다고 다짐하였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놀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또 지역주민들과 자연스레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는 우리나라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선구자 역할 및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둘째,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는 공연예술 분야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며, 다양한 공연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동하는 오케스트라도 구성하여 한층 폭 넓은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장애인 음악제를 3회간 개최하였으나, 적은 인력과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2013년을 마지막으로 잠정 보류된 상태이다.

셋째,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는 다양한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아산복지재단,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원문화재단, 수원교육지원

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관련 다양한 위탁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하여 '로브먼트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 예술인들의 수익 창출 모델로 확산되고 있다. '에이블 아트 스쿨'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과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품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엽서, 에코백, 스마트폰 케이스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장애 예술인들에게 그 수익이 돌아간다. 따라서 장애 예술인들이 단순 예술 활동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문 예술인으로 발돋움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V. 결 론

"예술이 변한다, 사회가 변한다." 이 문구는 장애인들의 시에 멜로디를 붙여 다함께 노래하는 '와타보시 콘서트', '와타보시 음악제' 등을 약 30년 동안 운영한 일본 하나아트센터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주윤정 등 2016). 예술의 힘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한 것이 바로 에이블 아트 운동이며, 에이블 아트의 핵심 기관이 일본의 하나아트센터(민들레의 집)이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만든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문화예술복합공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사례에서 나타난 현황 및 특징들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운영 방안의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과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연구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 이사장은 심층 면담에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그에 대한 깊은 고민과 그 속에 내재된 철학을 꿰뚫어보며, 심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였다. 즉,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단순한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 없이 장애 예술인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 하나아트센터에는 장애인들이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트 서포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하나아트센터의 관계자들 또한 장애 예술인들을 교육시키는 역할보다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장애 예술인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교육기관과 인력들의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에게 특화된 전문성을 갖춘 교육자, 기획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애 예술인들의 근본적이며 내면적인 문제들을 디자인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자와 기획자,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위한 새로운 모델의 전문교육기관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장애인들의 예술 공간은 단순한 시설이 아닌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는 설립 초기부터 공간 조성에 주안점을 두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와서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지역공동체에 개방된 카페를 통해 주민들과 자연스레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일본 하나아트센터의 '와타보시 음악 콘서트', '와타보시 음악제'는 복지 대상으로 비추어지던 장애인들에게 문화를 통해 자신을 포현하여 장애인 문제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문제의식을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주윤정 등 2016). 따라서 향후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장애인들이 예술 활동의 표현을 통해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여,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커뮤니티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사회통합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넷째,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개성을 존중하여, 그들이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형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자립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일본 하나아트센터와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는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이 상품화되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두 사례에서는 장애인들이 예술 활동을 단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티셔츠, 양말, 필통의 상품 판매와 연계되는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있다. 장애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소득이기 때문에, 먼저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디자이너와 상품을 개발하여 수입 창출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 예술인들을 위한 자립형 모델로 나아가기 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하며, 유관 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 하나아트센터에서는 매년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및 해외 연수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각 기관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이 중앙정부의 사업 혹은 단체에서 개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운영 현황이 조사되어야 하며, 장애인들이 예술 활동을 경험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애로 사항 및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유관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을 기록·보관·관리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시점에, 본 연구는 하나아트센터와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의 두 사례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운영 방안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기에, 상품학·문화·예술·교육 학술 분야와 문화예술교육 현장 모두 시사점을 가진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지는 한계점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일본 하나아트센터와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주체(참여자, 매개자, 정책가 등) 참여자들과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일본 하나아트센터와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 외에도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관련 다양한 선행사례들에 대한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외에도 학교문화예술교육, 마을형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하고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가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확산 및 지침을 주는 많은 연구들의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논문접수일: 2019. 11. 29.
- 수정접수일: 2019. 12. 17.
- 게재확정일: 2019. 12. 19.

참고문헌

권재윤, 이소미, 오윤선 (2018), “장애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적 제언,”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2(1), 81-100.

방귀희 (2013),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14), 장애인문화예술의 이해, 서울 : 솟대.

_____, 김언지, 오영석 (2013),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특수학교 예술교과를 중심으로,” 국립특수교육원.

백령, 권영욱, 김태황, 박숙경, 윤상용, 박만식, 박성준, 장은석 (2005),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2018),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송영화 (2017),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정책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혜원, 김세훈, 박영정, 임학순, 권순일, 이사민 (2015), “사회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사업 전략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에이블 아트센터 홈페이지. http://www.ableart.or.kr

오승연, 김석영, 이선주 (201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보험연구원.

옥정달, 유장순 (2018),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1(4), 159-178.

윤소민, 정지은 (2017), “문화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국제영화제의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중심으로,” 상품학연구, 35(3), 73-81.

전병태 (2010), “장애 예술인 창작 활동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지영, 정지은, 이석규 (2014), “문화소외지역의 문화예술교육운영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 부산 녹명윈드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9(3), 63-83.

정지은 (2016),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문화예술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과잉 음이항 모형을 중심으로,” 상품학연구, 34(2), 67-75.

_____, 윤소민 (2017), “다문화예술교육의 운영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국경 없는 문화 도시 천안만들기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12(1), 61-84.

_____, 이석규, 김춘경 (2014), “문화소외지역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사례연구: 동아일보 연천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14(2), 1-10.

_____, 이인배, 서재승 (2016),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의 활용을 중심으로-,” 충남연구원.

_____, 이제이 (2018),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방안,” 충남연구원.

_____, 정지영, 이석규 (2013), “글로컬리즘을 향한 지역축제의 운영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 – 아비뇽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7(10), 97-117.

주윤정 등 (2006), 에이블 아트,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하나아트센터, 「담뽀뽀」에 잘오셨습니다.

하나아트센터 홈페이지. http://tanpoponoye.org

Arte 365 (2018.12.05.) 누구에게나 평등한 문화예술교육 – 장애인 문화예술‘에이블 아트(Able Art)’.

Baumol, W. J. and W. G. Bowen (1966), *Performing Arts: The Economic Dilemma*. NY: The Twentieth Century Fund.

Crutchfield. S. and M. Epstein (2000), *Points of Contact: Disability, Art and Culture*.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Finkelstein, V. and E. Morrison (1993), *Broken Arts and Cultural Repair: The Role of Culture in the Empowerment of Disabled People*. Independent Living Institute, Internet Publication.

Hatch, J. A. (2008), 진영은 역, (교육 상황에서) 질적연구 수행하기, 서울: 학지사.

Riddell, S. and N. Watson (2003), *Disability, Culture and Identity*. London: Routledge.

播磨靖夫 (2004.10.23.), Korea-Japan Able Art Forum in Seoul 2004.